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0년도 제4호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자신을 닫아버려. 아무도 믿지마!’  
이와는 반대로 선택하신 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맑은 존재가 되어  
하느님과 타인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20년 5월 3일 부활 삼종기도)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 Jaco Klammer / ACN

어느 날, 저는 미사가 끝난 후에 열두 살 어린이 복사가 자신의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성당에서 듣는 이야기를 내가 전부 믿을 수 있는지 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당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그 부모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아이 또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 ‘안정감’을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느끼는 것은 신앙에서 출발하는 성숙한 삶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에 힘입어, ACN은 전 세계에서 가정 및 청소년 사목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N은 자체 발행하는 어린이 성경과 수백만 부의 「유캣(YOUCAT)」 시리즈 보급을 통해 첫 영성체와 견진 성사를 준비하는 데 특별히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캣」을 디지털화하여 종교 주제에 대한 청소년의 토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러한 발전을 기뻐하십시오. ACN이 이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관계 속에 살아 있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순수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관계의 존재’로 창조되어 있고, 처음부터 관계의 세상 속에 태어나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가정은 사랑의 첫 번째 관계 환경을 형성합니다. 다른 어떤 기관을 찾아봐도 관계와 결속, 인격 형성을 위해 가정만큼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이 ‘가정적 관계’의 기반은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오랜 시간을 함께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값진 시간을 만들 기회가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놀라운 연대감이 두드러지지만, 바이러스는 또한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지 않고, 잠재적인 바이러스 보균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위협으로 보게 되는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엄청난 가능성이 이 위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과 친구, 심지어 교회와 심도 있는 교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피상적으로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신앙과 하느님과의 관계 또한 온라인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실제적 현존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과 이웃과 세상을 대하는 법을 익히는 사람은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자주, 마치 이 세

상에 하느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당신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 가족, 세상과 우리 자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한 현대의 과학 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미디어 소비는 현실 인지를 변화시키고, 자기도취에 빠지게 하며, 공감 능력과 독립적 사고를 침식하고, 사람을 의존적이고 의지박약하게 만들며, 영원성의 관점을 파괴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적절히 이용하고 특히 개인적 관계를 가꾸는 일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가 관계 문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특히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새롭게 배워 봅시다. 기도하고 사색하고 독서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책을 읽어 주며 아이들에게 애착과 결속감을 만들어 줍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사랑의 실재와 일치하게 되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 대해 진정한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축복을 보냅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 아프리카에서 책임감 있는 부모 되기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에서 “실제로 혼인성사의 은총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89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감정과 본능에 대한 훈육이 필요(148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부부들을 자연주기법(NFP)의 상담사와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훈육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복지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책임감 있는 부모 되기”에 도달하게 하려는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콤보 교구에서는 진행 중인 교육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한 달에 54쌍의 부부가 각각 다른 두 쌍의 부부를 가르치는데, 마지막에는 5천 쌍 이상의 부부가 자연주기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세바스찬과 클라리세는 교육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먼저 낙태와 임신부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출산의 간격이 길어지면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품위가 존중되고, 그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카메룬. 연수를 마친 데릭과 앙투아네트 부부



콩고민주공화국 부키부의 '결혼의 행복' 수업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ACN은 인간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 사업에 약 15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부카부대교구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마로이 대주교와 교구 평신도협의회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13개 본당에서 성년이 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들이 혼인하기 전부터 참된 사랑의 세계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이야기하듯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의 기쁨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열정으로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은 헌신과 온전한 자아실현을 향하여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의 품 안에서 인간관계를 증진시켜 줍니다(148항).” **ACN은 26쌍의 부부와 52명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2개년 프로그램에 약 19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모두가 다시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는 우리를 연결하고 결속시킵니다. 노래는 영혼을 하느님께로 고양시킵니다.**

기도서와 성가책은 그런 이유에서 본당을 한데 묶는 접합제와 같습니다. 이것이 소수민족의 언어로 쓰여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북부 디나즈푸르 교구는 약 6만 2천 명의 신자가 있으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사제들은 그중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 집단인 산탈족의 언어로 된 기도서와 성가책이 신자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 찍었던 8쇄 분량이 절판되었고, 교구에는 9쇄를 진행할 자금이 없습니다. 교구장 세바스티아노 투두 주교는 2019년 12월부터 이들을 도와줄 자비로운 영혼을 찾고 있었습니다. **5천 부를 인쇄하는 데 약 89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2020년 성탄절에 모두가 다시 함께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ACN은 후원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성탄절 KIO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 그리스도, 생명을 위한 프로그램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청년들의 교황이었으며, 처음부터 청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젊은 심장의 완전한 활기와 감동을 지니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개인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 수도 사라예보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청년센터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오는 청소년 1만 명 이상이 도움을 얻습니다. 여름 캠프, 자원 봉사자를 위한 연수 캠프, 연령별 기도회와 피정, 청년대회, 십자가의 길, 성지순례, 종교간 대화모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12명, 시간제 근로자 20명과 자원봉사자 300명이 프로그램의 조직과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맞아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중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온라인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센터는 온라인 세미나와 영적 대화, 심리적 문제나 고민이 있는 젊은이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의 웹사이트 방문은 열 배로 증가했습니다. 진리를 봉쇄할 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9년 청년 성지순례



에티오피아의 여름캠프 준비. 마스크를 착용하는 청년들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센터가 지출해야 하는 전체 비용에도 중단은 없습니다. 그 액수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청년센터는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ACN은 그중 약 3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성 요한 형제회도 여건에 맞춰 청년사목 활동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여름 캠프는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신앙과 철학 과정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조치는 물론 취하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마카리안 신부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ACN은 이곳에 약 13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복음의 눈으로

“교회는 온 인류와 더불어 역사의 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8항)

**니카라과**는 오늘날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유대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리를 아는 것은 사회 평화에 있어서 결정적 의미를 지닙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성찰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판단의 기준들을 이끌어 내며,” 사회에서의 “행동의 지침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23항 참조). 이런 의미에서 니카라과 9개 교구의 교구장은 청년 사회 교리서 「두캣(DOCAT)」을 대규모 배포하려 합니다.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복음의 눈으로 사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그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정의와 인간 품위가 그들이 따라 걷는 니카라과의 ‘역사의 길’의 목적지입니다. **ACN은 니카라과 교회에 「두캣」 26,400권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성인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기

“우리의 형제자매이신 성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성인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살아 있는 동안 성인들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성인들과 온라인으로(Online with Saints)」

프란치스코 교황의 짧은 서문이 이 책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성인들과 온라인으로」는 멀티미디어 도서입니다. 종이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컴퓨터 모니터의 큰 화면이나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언제라도 성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조언은 패션과 신앙, 성소와 인간관계, 기도와 의식, 즉 삶의 모든 분야로 분류되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제시합니다. 2쪽 분량의 작은 지면에서, 성인들은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 간단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답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타(성녀 에디트 슈타인)가, “오래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라는 질문에는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가 답변합니다. 성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는 옷을 입는 데 가톨릭의 방식이 있는지, 성 체칠리아는 현대 음악은 악한 것인가에 대해,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는 가톨릭 신자가 문신과 피어싱을 해도 되냐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또한, 성 토머스 모어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항상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제인 복자 카를 1세는 현대의 정치인이 과연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 투르의 성 마르티노는 음식과 물 낭비가 얼마나 나쁜지 알려 줍니다. 오를레앙의

성녀 잔 다르크는 어떻게 군인으로서 성인이 될 수 있는지, 초대 교황인 사도 베드로는 어째서 성인들이 한편으로는 죄인인가에 대해, 그리고 성 요셉은 신자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진 청소년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묻는 약 200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든 시대의 성인들과 가상의 만남 속에서 찾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네덜란드의 미헬 레메리 신부가 앞서 저술한 「하느님과 트윗(Tweeting with God)」은 한국어로도 출간된 바 있습니다. **알바니아** 교회 또한 청년사목을 위해 「성인들과 온라인으로」를 알바니아어로 번역 출간하고자 합니다. 1990년까지 ‘세계 최초의 무신론주의 국가’였으며 그리스도인에게 잔혹한 박해를 가했던 알바니아에서 다시 그리스도교의 생명이 싹트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니아인 34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알바니아 교회는 극도로 가난합니다. 이에 슈코더르-폴트대교구는 번역, 인쇄 및 발행,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가상이 아닌, 온전히 실재하는 후원자 여러분의 자비를 신뢰하며 약 124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당신 자녀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이 쌓여 갑니다



선교의 수호성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소화 데레사)는 예수님께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하셨던 말씀을 즐겨 인용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허물어져 가는 나의 집을 고쳐 세워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20)라고 하셨던 선교 명령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의 안토니오 신부(살레시오회)는 보교구 성 데레사 본당에서 현재 선교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교구에는 150개의 가톨릭학교가 있는데, 각각 학생 수가 최대 1천 명에 달합니다. 이 학교들은 ACN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가 가장 좋은 선교 도구라고 하며, 실제로 그 외에 달리 가지고 있는 책도 없습니다. “책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곳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ACN 어린이 성경을 통해 “어린이들은 읽기를 배우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 눈과 정신과 마음을 열어 주며 하느님의 말씀이 쌓여갑니다.”

많은 학생은 어린이 성경을 보물처럼 갖고 살아갑니다. 안토니오 신부는 한 학급에서 “여러분은 이런 책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 놀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는 책 가격이 5유로(약 6,500원), 시에라리온 통화로 5만 리온 정도 된다고 어림잡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농산물 등으로 책값 5만 리온 중 얼마를 감당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1천 리온(약 13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는 “그러면 1천 리온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머지 49,000리온을 지불해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찬성했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는 다른 모든 학급에도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책 한 권마다 학생들이 가져오는 1천 리온을 모아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여름캠프 비용을 조달했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는 학생들에게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거듭 설명하며, 그들이 없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에는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어린이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토니오 신부 또한 어린이 성경 덕분에 베냉 바리바족의 언어와 토고 북부의 모바어를 배웠습니다. 그에게 어린이 성경은 곧 가정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른이 자신을 위해서,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어린이 성경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신부가 보교구의 학교를 위해 ACN 어린이 성경 5천 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약 1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가지고 성 데레사 본당에 하느님의 집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ACN 어린이 성경은 지금까지 191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5100만 부 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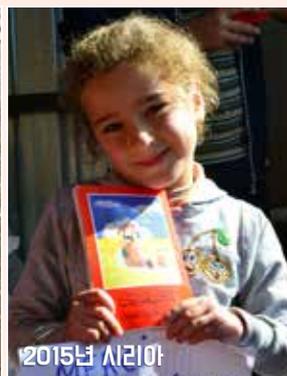
1989년 한국 어린이의 모습



1995년 라이베리아



2003년 알바니아



2015년 시리아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어린이를 위한 훌륭한 교리교육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멋진 사업에 대해서, 특히 전해 주시는 여러 소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ACN 어린이 성경을 가장 즐겨 사용하며, 특히 아이들의 생일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말 훌륭한 교리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아이들을 실제로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성당에서 발견한 「사랑의 메아리」

처음 ACN의 후원 요청을 들었을 때는 바로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른 자료와 비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성당 탁자 위에 있는 「사랑의 메아리」 소식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 그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ACN의 사업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무슬림과 가톨릭 신자가 함께

저와 절친한 한 무슬림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수입이 적고, 지적 장애를 가진 두 자녀가 있어서 생활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끝난 후 제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건네주며, ACN의 시리아 지원 사업에 써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 금액의 두 배를 기부했습니다.

## 아름다운 소식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이 후원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미사에 함께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돕고자 하는 박해받고 고통받는 형제자매들과 저 자신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게 됩니다. 하느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소서!

## ACN, 코로나19 긴급구호캠페인으로 200만 유로 전달

ACN 국제본부와 23개국 지부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맞아 긴급구호 캠페인을 진행하며, 세계 곳곳에서 가장 취약한 공동체를 보살피고 있는 사제와 수녀들을 위해 긴급구호 기금으로 500만 유로(약 65억 원)를 서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리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브라질 등지에서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새 긴급구호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까지 200만 유로(약 26억 원) 상당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 ACN 국제본부 안제이 할렘바 신부 은퇴

2020년 7월 31일, 폴란드 출신 안제이 할렘바 신부(65세)는 ACN에서 14년간의 직무를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할렘바 신부는 2006년부터 ACN과 함께했으며, 아랍의 봄을 앞둔 전대미문의 격변기인 2010년부터는 아시아 지원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는 특히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 지역의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난민에게 긴급 구호와 사목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리스도교 생존이 위협받는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대탈출을 늦춰 주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할렘바 신부는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로부터 늘 영감을 받는다고 하며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ACN의 영적인 특성입니다. 피 흘리는 교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에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 ACN은 존재합니다.”라고 감사와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 ACN, 2019 연간보고서 발표

2020년 6월 17일, ACN 국제본부는 2019 연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로마에서 개최해 온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대신,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ACN 후원자 여러분께'라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영상 메시지 링크

<https://bit.ly/AnnualActivity2019>



위 링크를 통해 ACN의 2019년 연간보고 및 활동 종합편과 피아첸차 추기경의 영상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 2019 연간보고서 한글판 발행



2019 연간보고서 한글판은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보기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 ☎ 02-796-6440

ACN은 2019년 모금액 1억 630만 유로(약 1382억 원)에 2018년 이월 기부금을 더해 총 1억 1120만 유로(약 1445억 원)를 ACN의 지원 사업과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39개국에서 총 5,230건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지원 지역 중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원 사업 중에서는 건설 지원, 난민구호 및 긴급 지원 다음으로 사제 및 수도자 양성 지원과 미사예물 지원에 많은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2억 명의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80개국에 이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은 40개국을 넘는 나라에서 박해와 억압,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ACN은 국제 사회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정보와 지지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에 80개국의 학교, 본당, 신앙 공동체와 가정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ACN 한국지부장, CPBC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2020년 7월 2일,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는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생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ACN 한국지부장직을 맡은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그간의 활동과 ACN의 2019년 지원 결과 그리고 '해의 코로나19 피해 교회 돕기' 긴급구호캠페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지부장 신부는 "ACN 후원 미사 중에 설립자 베렌프리트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다'는 확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랑의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며 한국 신자들의 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느님께 믿음으로 향해 같이 나아가는 형제자매라는 점을 인식하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선함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뷰 링크

<https://bit.ly/RadioCPBC>

위 링크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인터뷰 전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